



‘K-웹툰, 세로로 읽는 이야기로 일본 독자 만난다’ 콘진원, 도쿄서 ‘2026 K-웹툰 전시’ 개최

-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, 도쿄 주일한국문화원에서 우수 K-웹툰 전시 개최
- 월드 웹툰 어워즈 수상작 포함, <유미의 세포들> 등 우수 한국 웹툰 20여 편 소개
- 1월 30일, 웹툰 <지옥> 최규석 작가 토크쇼 등 개막 행사 통해 일본 독자와 교류
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최희영)와 주일한국문화원(원장 박영혜), 한국콘텐츠진흥원(원장 직무대행 유현석, 이하 콘진원)은 한국 웹툰의 창작성과 산업적 가치를 일본 현지에 소개하기 위해 ‘세로로 읽는 이야기: 2026 K-웹툰 전시(縦に読む物語 : K-WEBTOON 展)’를 오는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일본 도쿄 주일한국문화원 갤러리 MI에서 개최한다.

이번 전시는 일본 내 웹툰 독자와 콘텐츠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 웹툰의 서사 구조와 제작 방식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국제교류 전시로, ‘월드 웹툰 어워즈 2025 수상작’ 11편을 포함해 총 20여 편의 주요 작품이 소개될 예정이다.

◆ <유미의 세포들>, <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> 등 한국 웹툰 대표작 한자리에

전시에는 ▲지옥 ▲유미의 세포들 ▲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 등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작품들이 참여한다. 각 작품은 스토리 전개 방식과 캐릭터 구성, 연출 기법을 중심으로 구성돼 일본 관람객이 웹툰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.

특히 ‘월드 웹툰 어워즈 2025’ 수상작 전시 구역에서는 ▲전지적 독자 시점 ▲마루는 강쥐 ▲미래의 골동품 가게 ▲괴력 난신 등 작품 전시와 함께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은 K-웹툰의 주요 성과와 기록을 함께 소개해, K-콘텐츠의 성장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.

이번 행사는 작품 전시를 넘어, 웹툰 제작 과정과 ‘세로로 읽는 이야기’라는 형식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구성된다. 작가 인터뷰 영상, 캐릭터 일러스트 전시 등을 통해 웹툰에 익숙하지 않은 관람객도 쉽게 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

했다. 이외에도 캐릭터 배지 및 엽서 컬러링, 즉석 사진기 체험 등 다양한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과 전시 기념 포스터 및 엽서 등도 제공해 전시 몰입도를 높일 계획이다.

◆ 1월 30일, 웹툰 <지옥> 최규석 작가 토크쇼 등 개막 행사를 통해 한·일 교류 확대

전시 개막일인 1월 30일에는 웹툰 작가 최규석과의 토크쇼를 포함한 개막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. 최규석 작가는 <지옥>, <송곳> 등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으로 잘 알려진 웹툰 작가로, 한국 웹툰의 서사적 깊이와 현실성을 보여준 대표 창작자다.

이번 토크쇼에서는 작품 제작 과정과 웹툰 창작 철학 등을 주제로 일본 독자 및 콘텐츠산업 관계자와 소통한다. 이를 통해 K-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, 한·일 콘텐츠 교류의 접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콘진원 엄윤상 콘텐츠수출본부장은 “이번 전시는 한국 웹툰의 이야기 구조와 제작 방식을 일본 현지 독자에게 직접 소개하는 자리” 라며 “이를 통해 K-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, 일본 현지 기반의 산업 교류와 진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” 이라고 전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주일한국문화원 전시담당 하성환 팀장, 홍보담당 조은경 팀장 (81-3-3357-597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. ‘2026 K-웹툰 전시 도쿄’ 포스터 (1)~(2)



2026年1月30日(金)-2月28日(土)

開館時間 10時-17時 休館日 祝日・日曜日

駐日韓国文化院ギャラリーMI

〒160-0004 東京都新宿区四谷4-4-10

K-WEBTOON 展

사진 1. ‘K-Webtoon展 도쿄’ 포스터(1)

縦に読む物語

(翻訳者注) K-Webtoon展は、日本でも多くの読者を獲得している韓国発デジタルマンガ「ウェブトーン」が持つ文化的価値と表現の広がりを紹介する展覧会です。韓国で誕生したウェブトーンが、日本をはじめとする世界各地へのように広がり、受け入れられてきたのが、多様な展示と体験を通してお伝えします。

ウェブトーンは、スマートフォンやタブレットの画面で読む縦スクロール形式や、テンボスのある演出、感情表現豊かなキャラクターを特徴とする新しいマンガ表現です。近年では日本語訳本や配信プラットフォームを通じて日本市場にも定着し、映像化・アニメ化・ゲーム化など、さまざまなメディアへと展開しながら存在感を高めています。本展では、韓国を代表するウェブトーン作品3作品を中心紹介するとともに、「日本でも人気の高いウェブトーンであるロマンスファンタジー」に焦点を当てた「ロマンスファンタジー・ウェブトーン」作品をあわせて紹介し、日本で展開されている韓国のおもてなしロマンスファンタジー・ウェブトーン4作品をあわせて紹介します。

韓国の世界観やキャラクターの魅力を体感いただけます。世界から注目を集めるウェブトーンの現在と、今後の可能性を日本の観客に向けて発信します。

K-WEBTOON 展 展示

PART 1. 韓国代表WEBTOON

『ユミの細胞たち』
イ・ドンゴン

『地獄』
ヨン・サンホ / チェ・ギュソク

『デビューできないと死ぬ病気にかかってしました』
Jangjin / SOHEUN / DS.Back

PART 2. ロマンス・ファンタジーWEBTOON

『悪党一家を更生させたら』
ramji / Jerry Kim

『この結婚はどうせうまくいかない』
CHACHA KIM / Cheong-gwa / CHOKAM

『あなた!私、ストライキします』
Ko Eun Chae / Yeseul

『お父さん、私この結婚イヤです!』
Roal / Yuri / Hong Heesu / MYRRHA

作家トーク



チェ・ギュソク『地獄』

2026年1月30日(金) 17:30

1998年、ソウル文化社の新人漫画公募展を通じてデビュー。

以降、社会や人間を鋭く捉える世界観で
継続的に注目を集めてきた。

代表作に『恐竜ドゥリに捧げる悲しいオマージュ』、
『湿地生態報告書』、『大韓民国原住民』、『100°C』、
『泣くにはちょっと微妙』、『今はもうない物語』、
『ソンゴッ(鐘)』などがある。

ソウル国際漫画・アニメーションフェスティバル短編賞、
大韓民国漫画大賞優秀賞、「今年の韓国漫画」、
富川漫画大賞、ワールド・ウェブトーン・アワーズ本賞など、
韓国を代表する主要な漫画賞を受賞している。



イ・ドンゴン『ユミの細胞たち』

2026年2月21日(土) 15:00

ウェブトーン『甘い人生』でデビュー。

日常の感情や人間関係を繊細な観察力で描き、
誰もが共感できる普遍的な感情と、
一人ひとりの独自性をマンガ的な表現で描き出すことを
特徴とする作家である。

代表作に『甘い人生』、『ユミの細胞たち』、
『ジョジョコミックス』があり、特に『ユミの細胞たち』は
NAVERで連載され高い人気を博し、
2016年に「今年の韓国漫画」に選定された。

사진 2. 'K-Webtoon 展 도쿄' 포스터(2)